**무네오카 가문 주택**

무네오카 가문은 이와미 은광의 역사를 통틀어 다방면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무사 가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이와미에서 태어나 자라고 광산 전문가로 활동했던 무네오카 야에몬입니다. 야에몬은 이와미 은광의 지배권이 모리 가문에서 도쿠가와 가문으로 옮겨질 때까지 모리 데루모토(1553~1625)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은광의 권리가 도쿠가와 가문의 수중에 들어간 후, 1603년 일본을 통일하고 막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로부터 은광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로 임명된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는 일본 내에서 풍부한 귀금속 자원과 관련된 몇몇 직책을 야에몬에게 맡겼습니다. 그 직책 중에는 사도섬(현재의 니가타현 앞바다)의 금광과 은광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때 야에몬은 무네오카 사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야에몬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 이와미 은광에서 주로 세금 징수, 부교쇼(부교가 집무하는 관청)의 행정 업무 등을 담당했지만 1970년에 모종의 불화로 인해 가문은 그 직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후 1823년에 다시 이와미 은광으로 돌아온 무네오카 가문의 당시 가장이 도신(현재의 경위 정도에 해당하는 하급 관리)으로 고용되었습니다. 1830년대에는 먼 친척인 아베 가문으로부터 무가 저택을 부여받았습니다. 현재의 무네오카 가문 주택은 이때 지어진 것입니다. 안채 정면에는 정원이 있고 창고와 과거 다실로 사용되었던 별채도 있습니다. 담장과 문은 사라졌지만 뒤쪽의 헛간은 오리지널 설계도를 바탕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무네오카 가문 주택은 견학용으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건물 한 동 전체를 빌려 숙박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